

전주시, 방치된 빈집 활용 주거복지 실현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지에서 '전주1호 지역수요맞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준공식 가져

전주시 팔복동 빈집이 청년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했다.

전주시와 LH는 28일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내 조성된 '전주1호 지역수요맞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승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안창진 LH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팔복동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은 방치된 빈집 3개 등을 매입·철거해 신축한 전주시와 LH의 도시재생 협업사업의 첫 성과물로, 노인 12호와 청년 18호가 공급돼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시와 LH전북지역본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팔복동 신복마을에 오는 2024년까지 마중물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임대주택 1층에 위치한 주민커뮤니티 시설은 공동작업실(청년형)과 건강지원센터(노인형)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노인과 청년이 서로 돌봄 안전망을 구성하고 청년예술인들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주거와 돌봄의 시너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와 LH는 28일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내 조성된 '전주1호 지역수요맞춤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승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안창진 LH전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나이가 주민·예술가·청년 등과 연계해 도시재생 대학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주민공동시설 공간으로 활용되고, 도시농업·사회혁신·그린예술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주민공동체 문화 형성과 마을 활력 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이번 공공리모델링 임대주택 준공을 시작으로 팔복동 재생사업구역에 거점시설인 돌봄방앗간과 활력발전소, 그린순도서관을 건립하고, 집수리지원, 골목길 정비, 자율주택정비 등 정주여건도 지속해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공공리

모델링 임대주택 준공을 발판삼아 전주시와 LH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전주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며 "더 많은 빈집밀집구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전주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팔복동 공공리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퇴임

도의원 후보 출마 앞두고 오늘 기초의회 의정생활 마무리

전주시의회 강동화(61·3선, 진북, 인후1·2, 금암1·2) 의장이 12년 동안의 시의회 의정생활을 마감하고 29일 퇴임한다.



강 의장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의원 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

강 의장은 퇴임에 앞서 지난 21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언제나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기초 의회에서

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속에서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지키고 긴급예산 수립과 전주형 상생 정책의 중심에서 활약한 의정활동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 부활 30년의 빛나는 역사를 바탕으로 인사업 독립을 통해 시민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역으로 세우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이어 "이제는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과 성과를 밑거름으로 한 발 더 내딛으려고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민의를 대변하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

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제9대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강 의장은 10대 의회 전반기 행정위원장, 후반기 운영위원장, 11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거쳤다. 특히 2020년 11대 의회 후반기에는 특유의 리더십과 온화한 인품을 바탕으로 의장에 선출돼 2년 동안 전주시의회의 각종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또 2020년부터 올해까지는 전북시·군·자치구의 협의회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 의정협의회 부회장도 맡아 지역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마지막 재임 시기이자 의장으로서 의회를 이끌 당시에는 전라강영 재창조 부원과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사업, 지식산업센터 조성 등 민선 7기 주력 시책 사업들을 공론화하고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전주대대·항공대 이전을 통한 에코시티 개발 사업 등 지속적 지역현안 문제에 지치지 않았던 사업들의 의회의 견제와 감시, 정책 제시 등의 방식을 통해 조정·협의를 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강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흔들림 없는 우뚝 선 나무와 같은 강동화가 되겠다"며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했다.

/김윤상 기자

'꽃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 6월 2일 개막

정원 소재 중심 산업박람회로 생산자·소비자 소통의 장 마련 기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원산업박람회가 오는 6월 천안그루 정원도시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과 서신동 일원에서 '2022 꽃심,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지구'를 살리는 정원, 정원이 혁신하는 지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정원 관련 소재인 식물과 시설물, 기타 예술적 소품이 전시되고 거래될 예정이다.

이번 정원산업박람회는 이벤트 중심

의 행사가 아닌, 정원산업의 기반인 정원 소재 업계 종사자와 정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박람회는 크게 △정원산업전 △전문·시민작가정원 △마을공동체 정원 △정원문화 프로그램 △영양화상 등 5개 구역으로 운영된다.

주 박람회장인 전주월드컵광장에서는 식물 소재 생산 농가와 업체, 비료·종묘·시설물 관련 업체 등 8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판매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된다. 별도로 마련된

비즈니스 공간에서는 정원 소재 업체 간 정보 교류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주월드컵광장에서는 정원산업전 전시와 식물 소재 중심 샘플정원, 분수정원, 비밀의 정원, 숲속의 정원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으로, 다양한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신동 일원 공원에서는 기존 정형화된 공원 내에서 작가가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새로운 형태의 정원을 선보인다.

이밖에 △전주의 아름다운 정원을 둘러보는 정원여행 △정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원 토크쇼 △정원과 연

계된 요리 특강인 요리사의 정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박람회의 주제인 '지구'를 살리는 정원'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시민이 화분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과 구멍 난 신발 등의 물건을 가져오면 직접 화분을 완성해서 가져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분부장은 "다양한 신상품의 식물 소재와 정원 소품·도구·자재 등을 다루는 업체들이 소통하는 산업전이 진행되고, 도시 곳곳에 정원이 조성되어 많은 시민, 정원 관련 전문가나 소비자 등이 전주를 찾게 되는 전주만의 정원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박람회를 방문해 정원이 주는 행복감을 충분히 즐기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경관 개선 나선다

시, 오목대 일원 글로벌 관광환경 개선사업 추진

경기전, 고즈넉한 한옥건물 등과 함께 전주한옥마을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손꼽히는 오목대가 새 단장을 한다.

전주시는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오목대 일원(완산구 교동 65-67번지)에 대한 글로벌 관광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된 오목대는 조선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귀경하는 도중 승전을 지축하는 연회를 연 장소다. 1900년 고종이 친필로 쓴 태조고황제유필유지(太祖高皇帝御筆遺址) : 태조가 잠시 머물렀던 곳'가 새겨진 비가 세워져있다.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필

수 여행코스 중 하나이자 평소 전주시민들의 산책길로 사랑을 받아온 이곳에 목재데크 등 시설물의 노후화와 빛물로 인한 토사유실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됐다.

이에 시는 안전사고 우려 등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고 오목대가 더욱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쉼터로써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산책로(약 400m 구간)를 정비하고 벤치 등 휴식장소와 야외무대를 위한 조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관조명 등을 설치해 야간 산책코스를 조성하고, 전통수종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비빔밥축제' 류재현 총감독 위촉

지난해 성공적 변화 이끌어

지난해 전주비빔밥축제의 성공적인 변화를 이끈 류재현 총감독이 올해도 전주비빔밥축제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제14회 전주비빔밥축제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총괄 기획할 총감독으로 류재현 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류재현 총감독은 △흥대 클럽데이(2001년) △하이서울 페스티벌(2003~2007년) △월드DJ페스티벌(2007~2016년) △내나라여행박람회(2018-2020) 등 국내 30여개 유명축제를 제작·기획한 인물로, 한국마케팅협회 앙트너프러너십과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을 수상한 축제전문가이다.

지난해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총감독을 맡아 전주비빔밥축제의 변화를 이끌어 코로나19 속에서도 전라북도 대표축제 중 최우수 평가를 받는데 공헌하는 등 역할을 인정받아 올해도 총감독을 맡게 됐다.

류 총감독은 지난해 전주비빔밥축제 총감독을 맡아 명인·명가들의 전통음식은 물론, 젊은 셰프군단의 다양한 퓨전음식 등을 선보였으며, 한옥마을의 아름다운 뷰 명소를 소개하는 등 148대 1의 사전예약 최대 경쟁률과 SNS 조회 수 42만5513건 기록 등 축제의 성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제14회 전주비빔밥축제의 프로그램과 행사를 총괄 기획할 총감독으로 류재현 씨를 위촉했다.

전주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 시상

전주시는 27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킨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 4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468종에 대해 법정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시 개인별 마일리지를 부여해 누적 점수가 높은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일선 현장에서 각종 민원을 처

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매년 3회(4월, 8월, 12월)에 걸쳐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시상을 통해 민원처리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업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해 전주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임정엽, 전주시장 불출마

임정엽 전 전주군수가 시장 출마 의사를 거두고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을 무엇인지, 전주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정엽 전 군수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우뚝기 후보의 경선 승리를 계기로 시민과 언론인 앞에서 약속한 대로 전

주시장 출마 의사를 거두고 민주당원으로 백의중군한다고 밝히고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역할이 무엇인지, 전주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기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임 전 군수는 경선 막판에 이뤄진 정책연대 선언을 회고하고 "당시 시민과 당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지만 자신의 진심 가득한 호소에 응답해 주셨다"고 자평하고 "우뚝기 후보는 약속한 대로 10대 핵심 공약과 100대 세부 공약을 우 후보의 공약과 환상의 조합을 만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본인의 선전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30일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제100주년 어린이날을 앞두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는 오는 30일 센터 야외 주차장 공원에서 지역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상열)와 함께 마련한 이 행사에서는 전주지역 아동과 양육자 75가정(2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오감자극 놀이 체험활동 및 페이스페인팅 △육아에 지친 부모를 위한 '마음돌봄' 아동상담 등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

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상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여성 마음건강사업 일환인 '마음돌봄' 이동상담을 통해 도내 여성 대상 정신건강 점검·상담 등 심리지원 및 영유아 대상 오감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와 양육으로 지친 부모와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숙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즈음해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안전하고 활기찬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